



## 06. 가슴 뛰는 비전 수립 전략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동기 가지기</li> <li>▪ 비전이란</li> <li>▪ 비전수립 및 실천행동 다짐</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li> <li>▪ 비전의 의미와 필요성, 수립/달성 전략을 알고 수립할 수 있다.</li> <li>▪ 나만의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행동 다짐을 기록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또 어학생은 또 꿈 이야기 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생각하도록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꿈은 왜 꿈에 대한 동기를 가져야 하는지 의미와 역할과 비전을 수립하는 전략과 비전을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지 실천 행동에 이르기 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왜 공부돼요? 왜? 왜 꿈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할 때 긍정적인 삶의 목적, 방향상이겠죠? 취업이나 진로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 때문인데요, 삶의 목적이 없다면,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긍정적인 비전을 수립하면, 비록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노숙자를 꿈하고 비교하는 것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부모님들 너 공부안하면 노숙자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노숙을 하는 것이 일하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시에서 조사하는 자료를 보면 일이 줄어서가 노숙 생활 하게 된 것이 34% 그리고 실업이나 부도가 27% 일관 관련한 일이 무려 61%가 노숙생활과 관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있어야지 공부도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앞으로 직업도 인생도 행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꿈을 왜 가져야할 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죠? 만약 꿈을 꾸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도 아니고,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학교 수업도 싫고, 직업도 싫고, 직장도 싫고, 가족도 싫어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티비 프로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이 재미가 어떻게

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외부에서 오는 외적 재미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적 재미가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내적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가 꿈이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꿈이 꼭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겠죠? 이런 것은 영화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올바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닉 부이치치 일본의 오토다케, 우리나라에는 승가원의 아이들에서 반장이 안돼서 눈물을 흘리는 태호라는 학생. 저도 잠깐 봤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려요. 어린 아이도 삶을 절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학생 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처음에 부임을 해서 의욕이 넘쳐서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영찬 학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못하는 시청각 언어 중복장애인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옆에 계신 분이 영찬 학생에게 모스부호처럼 허벅지를 짚어줍니다. 그 허벅지에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가르쳐 주는데요, 나중에는 기계가 좋은 것이 도입이 되어서 워드로 치면 점자로 변화는 되었습니다. 영찬 학생이 과제물을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찬 학생의 꿈은 작가가 되겠다, 참된 삶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38살입니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졸업하면 43살입니다.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이루기 쉬운 꿈입니까? 아니면 이루기 어려운 꿈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꿈이죠? 하지만 저는 선생이니깐 영찬 학생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생활을 하다 보니 영찬 학생의 글을 블로그에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워 블로그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 구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는데요, 영찬 학생의 글을 올렸더니, 영찬 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4학년이 되었을 때 방송 4사에서 다 연락이 온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다루고 싶다. 영찬학생에게 전화했더니, 영찬 학생이 전화를 못 받으니까, 아내분 김순호씨가 있거든요, 순호씨가 전화를 받고 "영찬학생하고 이야기 하고 나서 전화드릴게요. 교수님"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예요. 그런데 싫다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집중하고 위해서 방송에는 안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저는 선생이니깐 마음속으로 '아 안 될 것인데...방송에 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될 것 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아쉽게 끊었지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1년도에 달팽이와 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2011년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부분에 특별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조영찬이라고 검색을 하면 모든 사이트에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배우로 검색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진다는 것이 그만큼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찬 학생 한하기만 가르친 것 만해도 너무 즐거워서 자랑을 어딜 가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돼, 공부를 못해서 안 돼, 언어 능력이 안 돼 항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덩치가 커다랗게 산만큼 되었는데도 어렸을 때 쇠말뚫에 있듯이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하듯이 자기 안에 마음의 사슬을

우리가 심고 다닌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떤 제약도 가지지 말고 내 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사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 미래를 보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꿈’, ‘사명’, ‘삶의 목적’, ‘인생의 목표’등이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목적, 소명, 소망, 소원, 목표 설정 등의 용어와도 근접합니다. 동양적으로는 삶의 철학, 사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혼, 뜻, 신념, 의지, 믿음 등의 뜻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전, 꿈, 그리고 목표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비전과 사명은 목적, 방향, 지침을 의미하고, 꿈과 소망은 소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즉, 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과제에 따른 성취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념이란 뜻, 철학, 가치관을 의미하고, 태도란 삶의 방식,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가려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토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현재와 더불어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속적이면서도 생생한 영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비전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해 정리해 보면, 비전이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왜 수립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스프링 벙커럼 무조건 빠르게 내달리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 없이 맴돌다가 굶어 죽는 날벌레처럼 사람들 눈치만 보며 목적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일 지금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먼저 가슴 뛰는 비전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동기를 부여 받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 목록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학생이 비전을 찾기 위해 작성한 버킷리스트 인데요. 이렇게 직접 버킷리스트를 적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전을 수립할 때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라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방향성부터 바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히틀러와 같이 한 개인의 잘못된 비전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수립할 때에는 꿈은 원대하게 가지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8년 동안 수감됐던 미 해군 스톡데일 장군은 “막연한 희망을 품은 낙관주의자와 희망을 잃은 비관주의자는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중에 누가 수용소에서 더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그와 함께 포로가 된 병사들 중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나 비관주의자보다 오히려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나겠지’하고 상황을 막연하게 낙관하던 병사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을, 부활절이 지나면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식으로 상황을 낙관하지만, 한번 두 번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심 속에 삶을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 스톡데일 장군은 “우린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해”라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반드시 포로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서도, 결코 그것이 쉽게,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 믿음임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즉,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수립할 때에도 막연한 믿음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립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가발전동력기가 있습니다. 그럼 자가발전동력기의 에너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은 바로 타고르는 열정으로 이것은 선택적 열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에너지원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장인정신이고, 세 번째, 에너지원은 끊임없는 도전정신입니다. 열정, 장인정신, 도전정신의 세 가지 에너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비전 달성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가발전 동력기를 가동시키려면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정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0.01m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인내해야 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과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내재적 에너지원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에너지원을 확인하셨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비전 달성 전략을 작성하여 실천해보시고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성공한 사람들의 비전을 알아보고 나만의 비전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전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 떠오르지 않으세요? 1963년도에 워싱턴 연설, I have dream이라는 또 아바가 부른 노래로 유명해졌는데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자손과 옛 노예주들의 자손이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러한 연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영상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 틀어주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생생한 비전, 비전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킹 목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멘토라고도 볼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인도의 간디를 들 수 있는데요, 목숨을 초월하는 비전이죠. 인도에 간디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저 계속 걸어 가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치더라도 되받아 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더라도 되받아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되받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러한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인도가 나중에 비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빅터프랭클린이라는 심리학자의 죽음의 수용소를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사실 재미보다는 감동 깊은 책이죠, 보면 아호슈비치 라는 완벽한 제약 속에서도 무엇이든 이야기 합니까? 독일인이게는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나치의 잔혹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간의 병적인 정신 상태를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명을 뛰어넘게 되는 힘, 그것이 비전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 personal computer on every desk in every home 모든 가정에 한 대의 컴퓨터

터를 두겠다. 누구의 비전이겠습니까? 누구는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본 책에는 마이크로 스포츠의 빌 게이츠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모든 가정에 보면 한 집안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몇 대씩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제가 VJ 특공대 보면서 깜짝 놀랐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던 여성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검을 다루는 장인인데,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 분이 이해연이라는 분인데, 내가 전수를 받겠다 하고 그분의 비전을 듣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분은 짧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외국인들이 제 칼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올 정도로 칼을 잘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 일본도 사람들이 사가는 데 우리나라에 단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롤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탐색해보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롤모델의 어떤 이름 그들의 직업, 그들의 비전, 이런 식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롤모델을 알 수 있겠죠. 유명하신 분도 괜찮고 가까우신 분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존경하게 된 계기와 업적, 롤모델의 성공전략, 본받고 싶은 행동 롤모델 인터뷰, 없다면 돌아가신 분이라면 이러한 언론기사나 책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유명인들처럼 한줄 비전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 한 줄에 떠올라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인다. 입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비전도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도 알려주고 학생들 비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당장 실행할 행동은 무엇인지 써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좋은 비전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전 수업은 사실 2시간짜리 특강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루 특강 이틀 특강 계속 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니깐 한번 진행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